



The Forerunners of Christ with Saints and Martyrs(1423-24), Fra Angelico, The National Gallery, UK.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10)

■ 미사전례

- 제 1독서: 묵시 7,2-4.9-14
- 화답송: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제 2독서: 1요한 3,1-3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 복음: 마태 5,1-12ㄴ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답송:

-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12

새내기 신앙인을, 혹은 새내기 수도자를 이끄는 영적지도자는 위대한 스승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 한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은 아름다운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좋다. 또 나는 어떤 아름다운 신적, 영성적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체험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의 복사본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영적지도자는 자신의 엄격한 생활방식을 과도하게 주입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엄격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이를 강요한다면 자칫 죄책감과 나약함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에게 이끄시는 방법은 인류의 숫자만큼 많다. 따라서 영적지도자는 자신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영적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유혹은 ‘유익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들(과도한 활동, 과도한 겸손) 안에서 ‘넌 지금 행복해’ ‘넌 이대로 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어’ 라며 잘못된 인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원에서 볼 수 있는 사례 중 선배 수도자가 후배 수도자에게 “넌 꼭 이런 체험을 해야 해” “넌 이렇게 해야 진정한 수도자야”라고 말하는 경우다.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자발적 체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영적지도자는 마음속에서 불길이 저절로 타오르도록 한다.

건강한 정신과 영적 토대를 가진 사람이 수도회에 입회해서 혹은 가톨릭 신자가 되면서 스스로를 불구화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지켜봤다. 인생살이에서 건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미 영성적 삶을 살았던 이들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았건 몰랐건 전에 그들은 이미 영성의 신비 우산 속에서 있었던 이들이다. 그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나약한 병자로 몰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영적지도자, 영성 교사, 예비신자 교리교사, 사제,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내 것을 혹시 너무 강요하지는 않는가”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나의 목상을 절대화시켜서 끌여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지도자에게 영성 상담을 많이 받을 것을 권고한다. 잘못된 영성 상담을 통해 자기 과신에 떨어지지 않는지 성찰해야 한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밑에 있는 이들은 모두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명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늘 Yes라고 말한다. “내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시는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 영적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인간이 영적인 꽃을 피우게 돕는 것이다. 인간만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잘 살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다.

신앙생활 처음에 선택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원해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의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을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분께서 태어나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그분께서 섭리해 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도, 지금까지 좋은 삶을 살았던 것도 모두 그분께서 해 주셨기에 가능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의 합치, 일치로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일생을 통해 깨달아 가는 삶 안에서의 관상이다. 문제는 근본적 영성이든 특수한 영성이든 주부적 영성이든 이 모든 것이 모두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나의 삶을 통해 하느님 섭리의 위대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남이 나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 영성은 영성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꽃을 든 우리 각자는 함께 손을 잡고 하느님 대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이제부터는 이 개인적 영성의 꽃을 일상 안에서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톨릭신문 제2761호(2011년 9월 4일) -정영식 신부(수원교구 둔자본당 주임)>

성삼 소식

LA 교구 2차 헌금(Holy Land)

- 오늘은 “성지 보존”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모집

- 개강 일시: 12월 6일(대림 제2주일)
- 성삼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될 예비자들을 초대합니다.
※“예비자 봉헌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On-line 그룹 성경반 모집

- Zoom을 통해 On-line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 그룹 공부: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사도행전.
- 시작날짜: 11월 15일(주일)예정
- 신청기간: 11월 8일(주일)까지
- 문의: 박애실(헬레나) 213-500-9393
<e-mail: sungsamibible@gmail.com>

주일학교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 등록비: 없음.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반별 온라인 수업시간:

학년	요일	시간
고등부	매주일	오후 1:00
중등부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2:00
4-5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00
3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30
1-2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2:00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우리들의 정성 (2020. 10. 25 현재)

교 무 금	4,255.00	교무금(17명) 강장섭, 김은미, 김정애, 김주홍, 김진정, 김천애, 김현정, 김 호, 박기종, 백부기, 신동욱, 윤지철, 이용일, 최규용, 최재각, 최진경, 한석희, 감사헌금(4명) 김광신, 김천희, 한석희, 익명, 기부금(1명) 익명, 성소후원금(8명) \$11.00
주일헌금	1,075.00	
감사헌금	255.00	
기부금	50.00	



위령성월(慰靈聖月 [라] Mensis sanctus pro defunctis [영] Holy month for departed)이란?

성월이란 전례력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달에 특정한 신심을 복돋기 위해서 정해놓은 한 달 동안의 특별신심 기간을 말한다. 특히 정해놓은 법에 따라 성월에 일정한 신심행위를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황들이 특전을 줌으로써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Enchiridion Indulgentiarum 118, 175, 217, 219, 253, 325, 364, 381, 389, 398, 466, 589).

성월 중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 위령성월이다. 998년에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딜로(Odiló)는 11월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하였고 이것이 널리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11월 한달 동안 위령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11월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성월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의 옛 전통을 받아들였다.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그리고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이로써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또한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다. 특히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11월에는 낙엽이 지며 을씨년스러운 가을의 복판에 있게 된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미사 중에 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령성월은 죽은 이를 기억하기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 할 수 있는 때라고 하겠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지해준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의 순례를 계속해야하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기도는 가능하며 따라서 위령성월도 더욱 의미 있어지는 것이다. -가톨릭 Goodnews 자료-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1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 베이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어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희(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웁)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무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템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